

2011.06.20 미래정책연구실

□ FAO,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 "Save and Grow" 제안

1. FAO, WSJ(2011.06.13) 주요 내용

- FAO는 세계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해, 1960년대 녹색혁명(Green Revolution)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"Save and Grow" 를 발표함.
 - 지난 수십년간 집약적인 영농으로 인해 토양 오염, 생물다양성 감소, 수자원 고갈, 기후변화 등 전세계 자연자원이 황폐화되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밝힘.
 - FAO에 따르면, 세계인구는 현재 67억 명에서 2050년 92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므로, **식량 수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70% 이상 증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.**
- 이번에 발표된 'Save and Grow' 보고서는 전세계 25억 명에 달하는 영세농들을 대상으로, 보다 지속가능한 경작 방식을 제시함. 즉, **농업 생산비용은 낮추고 단수를 극대화하면서도, 바람직한 농업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.**
 - 경작 방식의 한 예로, 정밀농법(Precision agriculture)은 외부 투입물을 적시·적량 투입함으로써, 경작에 꼭 필요한 만큼만 투입하는 기술이며, 해충 관리도 살충제 사용 감소를 위해 핵심적인 기술임.
 - 그 외에도 유기 토양, 홍수 조절, 곤충을 이용한 수분 및 방제 등 생태친화적 접근을 포괄하고 있음.
- 또한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 각국의 정책입안자는 농업인이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데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.
 - 구체적으로 신기술 교육 지원 확대, 국가 차원의 농업생산 프로그램 강화, 기후변화 대응 품종 보급, 비료·농약 등 투입재의 효율성 제고
 - 국가별로는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ODA 중 농업의 비중 확대, 개도국은 자국의 예산 중 농업 분야의 투입 비중 확대 제안

<참조>

- 1960년대 식량 증산에만 초점을 두었던 녹색혁명 이후로, 생산성 뿐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농업을 뜻하는 기존의 개념으로는 UN의 녹색농업(Green Agriculture), FAO의 기후대응 스마트농업(Climate-Smart Agriculture) 등이 있음.

* UN의 녹색농업(Green Agriculture): '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식품공급을 보장하면서 농가생산성과 수익성을 유지 및 증대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도하고,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생태적 자원(토양, 물, 공기 및 생물다양성 자연자본 자산 등)을 복구하는 농업'

* FAO의 기후대응 스마트농업(Climate-Smart Agriculture):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저탄소농법으로의 전환을 뜻하며, 개도국의 농업이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, 개발된 최신의 과학기술과 제도개혁,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

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